

빛 활용한 미디어아트·AI 레시피 등 '다채'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ACT페스티벌 현장 둘러보니
인공지능·가상체험 즐기려는 관람객들 줄이어
28일까지...VR·컴퓨터 등 연계 융복합 작품 선보
ACT페스티벌 과학기술 매개 음식 탐구도

고급을 쓰고 아이폰을 꺼져 내내 푸르스름한 화면이 펼쳐진다. 곧이어 새벽안개가 낮게 깔린 숲의 풍경이 나타난다. 숲은 이제 막 새벽에서 깨어난 것처럼 싱그럽고 신비롭다. "지금부터 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곧이어 들려오는 내레이션은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느낌을 준다.

숲은 커다란 나무와 작은 나무, 크고 작은 자갈한 다양한 수종이 어울려 있다. 숲의 풍경이 바뀔수록 이편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편의 의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느낌이다. 숲 사이사이에는 오래 전에 경험했던 추억이나 기억들이 박혀 있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풍경과 기억은 한번쯤 현실의 세계에서 보거나 겪었을 내용들이다.

룸톤의 '인 더 그라데이'는 인간이 꿈을 꾸는 동안의 의식의 경계를 빛으로 탐색하는 작품이다. 꿈을 꿀 때 인간의 신체는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식은 그 경계를 끊임없이 오가며 낯선 경험을 한다는 데서 착안을 했다.

게임, 사운드 디자인, 미디어 아트를 VR로 구현하는 크리에이티브 팀 '룸톤'의 작품은 이색적이었다. 가상공간을 스

토리텔링과 미디어 아트로 구현해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탐색한다. 2017년 칼레이도스코프에 크리에이터로 선정되기도 했던 룸톤은 VR, 비디오, 컴퓨터 등 다양한 장치와 기기를 활용하는 팀이다.

22일 개막한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2019 ISEA)과 ACT페스티벌이 펼쳐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은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는 이들이 모처럼 활기가 돋았다.

28일까지 광주에서 처음 열린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은 빛고를 광주를 떠올리게 하는 빛의 작품들이 다수 선보였다. 이번 행사 주제인 '영원한 빛'(Lux Aeterna)답게 기획특별전시장이 열리고 있는 창조원 복합5관에는 인공지능과 가상체험을 즐기려는 관람객들이 줄을 섰다.

헤르비그 세라본 등 4명의 작가들의 작품 '에프터라이프'도 몰입형 가상 현실을 제공한다.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인 죽음 이후의 세계를 디자인, 코딩, 3D아트로 구현했다. 작품 속 '이승'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빛, 색, 사운드로 우주의 광대함과 신비로움을 다채롭게 표현한다.

관람객이 직접적인 체험의 결과를 확

인할 수 있는 작품도 있다. 폴란드의 프제미슬라브 자실스키의 '오라클'이 그것. 손님을 토대로 관객의 미래를 예측하는 점술 기계 작업으로, 작품 제목 '오라클'은 '신학'(오라클)에서 유래했다. 권위와 신성의 점괘, 계산과 기계의 과학 등 상호 이질적인 두 영역의 결합은 흥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날 기자의 손금 점괘는 '행사장을 찾는 당신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내용보다는 화면에 비친 손금이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등에 의해 빛으로 구현되는 장면이 이채로웠다.

이한 작가의 '램스'는 빛을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구현한 작품이었다. 이편의 움직임에 따라 수십 개의 전구가 반응을 하는데 불이 켜질 때의 경쾌한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을 넘어 편안한 화음으로 다가온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한 작가는 권위 있는 어워즈를 다수 수상했으며 뉴욕, 애크런, 상하이, 광저우, 서울 등에서 전시한 바 있다.

ACT(Arts Creative Technology)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복합 3관, 4관은 과학기술을 매개로 한 음식을 탐구하는 장(場)이다. '푸드 & 테크놀로지'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페스티벌은 음식과 예술의 결합을 탐구하면서도 작업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해킹'이라는 방법으로 조망한다.

타이완의 팀 통 창의 '인간 막걸리'는 우리 신체에 존재하는 생물이 우리 신체

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일종의 '미생물 초상화'다. 작가는 인간의 신체와 주변에서 추출한 종균으로 막걸리를 빚는데, 미생물의 대사작용으로 특유의 향이 만들어진다.

미국의 폴 공작가는 인간 행장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를 살리기 위한 식단을 제안하는 '막창자꼬리 인간' 프로젝트를 펼쳐며 작가 알루는 '미역 프로젝트'를 매개로 미역을 디지털 미디어로 재해석한다.

ACT에 참석한 작가들의 토크도 있었다. 복합 4관에서 1시부터 이어진 토크에는 조니 디 블라시가 '논리적 토폴로지'를, 언해피서킷의 '예술가가 바라보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관객과 대화를 나눴다.

조니 디 블라시는 "지난 수십 년간 디지털 미디어 이론 그리고 그 미학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이와 관련된 시각각 개념은 기술만큼이나 급속도로 변화하며 재생산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로봇의 움직임으로 기계의 인간화를 희화한 일본의 로봇 퍼포먼스, 빛과 연계된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 융복합 설치 작품 등이 눈길을 끌었다. 이번 페스티벌 기간에는 전시 및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고 특별 기획전 작품은 7월 28일까지 열린다.

한편 복합 2관에 전시된 작품들과 작가에 대한 설명이 영문이나 다른 국제어로 표기돼 있어 관람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2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한 2019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ACT페스티벌의 한 장면. 관람객이 이한 작가의 '램스' 앞에서 손을 펼쳐자 전구들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반응한다. /최해배 기자 choi@kwangju.co.kr

임진왜란 명장 이순신·용장 선거이 우정

정찬주 작가 '칼과 술' 퍼내



정찬주 작가가 임진왜란 명장 이순신과 용장 선거이의 의리와 빛으로서의 우정을 그린 소설 '칼과 술' (작가 정신)을 펴냈다.

보성 출신 선거이는 함경도 조산보 만호 이순신이 녹둔도 전투에서 패전의 누명을 쓰고 하옥될 때 위로주를 권하고 적극적으로 변호해 이순신 백의종군을 도운 인물이다. 27세에 보성 군수 추천으로 선전관이 됐으며 21세 때 무과에 급제된 뒤, 37세에 함경도 북병사 이일의 계청 군관으로 경성읍성에 부임한다.

작가는 두 사람의 의리와 오랜 우정을 토대로 전체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순신과 선거이는 만나자마자 활쏘기를 겨루며 장수로서의 기개를 서로 알아본다. 또한 선거이가 이순신에게 마음의 징표로 칼을 선물하는 내용 외에도 이순신이 선거이가 중병이 들어 고향 보성에 누워 있을 때 직접 문병 가서 위로하는 내용도 있다.

유성룡은 선거이에게 "일찍 이순신을 만났고, 지금 선거이 군관을 보니 마치 범장이 조선 땅에 나타난 것 같이 든든하구먼"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클래식과 라틴 음악이 만나다

폴리 26일 광주문예회관 '퓨전밴드POLY, 라틴클래식'

클래식의 감미로운 선율에 열정적인 라틴 음악을 덧입힌 퓨전 무대가 광주를 찾아온다.

퓨전퍼커션밴드 '폴리'(Fusion Percussion Band POLY·사진)가 오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공연 '퓨전퍼커션밴드POLY, 라틴클래식'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클래식에서 아프리카반 재즈, 브라질리안 재즈 등 라틴 음악을 혼합한 '라틴 클래식'으로 무대를 꾸민다. '삼바', '맘보' 리듬으로 잘 알려진

라틴 음악은 스페인·포르투갈·아메리카 원주민·흑인 음악 등이 배합된 음악으로, 풍가, 붕고, 마리카스 등 라틴 타악기를 주축으로 독특한 리듬을 만드는 게 특징이다.

이날 레퍼토리는 멘델스존의 '결혼행진곡',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3악장'과 '엘리제를 위하여', 비제의 '하바네라', 쇼팽의 '즉흥환상곡' 등이다.

지난 2003년 창단한 '폴리'는 드러머 양왕열과 라틴 퍼커셔니스트 최유석, 베이시스트 성철모, 피아니스트 황성범, 마림비스트 고길영, 색소포니스트 이기영으로 구성돼 있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13-8235./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동수정·최유진 피아노 듀오 연주회

2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동수정·최유진 피아노 듀오 연주회'가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전남대 선후배 사이인 두 피아니스트의 무대로 꾸며진다. 1부에선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16번'을 그리그가 두 대의 피아노로 편곡한 작품, 생상스의 '베토벤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하고, 2부에서는 아렌스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제1번'과 인판테의 '세 개의 안달루시아 춤곡'을 선보인다.

동씨는 전남대 예술대학,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동수정 최유진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에서 디플롬을 취득했다. 이후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거쳐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이화여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씨는 전남대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자브워켄 전문연주자과정과 에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지금은 전남대와 순천대학에 출강 중이다. 전석 2만원(학생 50%). 문의 010-6331-6834.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운~ 부자되세요!

클로버 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팝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루팡 닭강정 북구 용동동 우방아이유힐상가 매운맛, 달달한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 010-3844-7145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궁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 010-8003-9000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관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임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백세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궁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궁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박당화랑 동구 궁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